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인구유지·지역활성화로 지속발전 도시 실현	도시마
산업·경제	4	슬라이드 이동형 등 생활지원로봇 실증실험	가나가와
환경·안전	6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등 플라스틱 쓰레기 규제	자카르타
	9	자동차도로·집앞 보행로 제설규정 '손질'	에드먼턴
도시교통	11	접근·안전·저가성 기반 노인특화 교통전략 수립	뉴사우스웨일즈
도시계획·주택	14	옥외광고물 설치부터 관리까지 규제·지도	오사카
	16	촘촘한 관리의 '광고물조례' 별도 제정해 경관보호	보르도
	18	활용도 낮은 가판대 10곳 새 용도 모색	바르셀로나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정책 수립 및 도시 분야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계 선진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사례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통신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과 관련된 문의사항과
 발간에 참고할 만한 의견,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출판팀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케이프타운	김소망	런던	오도영
암스테르담	장한빛	버밍엄	정기성
베를린	신희완	피렌체	김예름
	유진경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도쿄	박재호
뉴욕	윤규근		이용원
	이수진	오사카	권용수
	이정근	베이징	박성은
	정수지	상하이	문혜정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에드먼턴	장지훈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토론토	고한나
시애틀	강민규		김용훈
시카고	김영준	보르도	김준광
스톡홀름	문선우	파리	배세진
	허윤희	시드니	정용문
바르셀로나	진광선		

인구유지·지역활성화로 지속발전 도시 실현

여성친화적 마을 만들기, 지방과의 공생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일본 도시마区 / 도시계획·주택

- 일본 도시마区는 2040년까지 20~39세 젊은 여성이 반으로 줄어들고 인구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소멸가능성도시'(消滅可能性都市)로 꼽혀 대책을 마련 중임. 인구유지·지역활성화로 지속발전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여성 친화적 마을 만들기', '지방과의 공생', '국제 예술·문화 도시 구축', '고령화 대응' 을 주요 축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개요

- 도쿄도 내 23구 중 유일하게 2040년 소멸가능성도시로 선택
 - 도시마구는 2040년에 20~39세 여성이 반으로 줄어들고,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소멸가능성도시로 조사
 - 2014년 5월 8일 민간전문가조직 '일본창성회의'(日本創成會議)가 발표한 전국 자치단체 장래추계인구 발표 결과
- 구는 이를 위기로 받아들이고 전 일본에서 진행 중인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
 - '여성 친화적 마을 만들기', '지방과의 공생', '국제 예술·문화 도시 구축', '고령화 대응'이라는 4가지 방침을 중심으로 인구유지·지역활성화를 추진

- 여성 친화적 마을 만들기

- 20~30대 여성 중심의 회의를 개최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 '나답게 살 수 있는 거리'라는 여성 친화적 마을 만들기 캐치프레이즈 선정
 - "다양한 사람이 사는 집이 모여 마을 전체가 빛난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도 빛날 수 있도록"이라는 신념을 담은 심벌마크를 제작



[그림 1] 도시마구 여성 친화적 마을 심벌

-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 정보 등을 전송하는 사이트 ‘도시마scope’(としまscope)를 개설
- 직장 상사가 직원의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응원하길 기대하며, 구청장과 구내 주요기업 등이 모여 ‘이쿠보스 선언’(イクボス宣言)을 함
 - 2016년 9월 29일 구청장을 포함해 구내에 거점을 둔 주요기업 46개사, 7개 대학, 13개 구 관련 단체가 선언에 참여
 - 이쿠보스는 육아(育)와 상사(Boss)의 합성어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배려하는 경영자나 상사를 의미



[그림 2] 도시마구 이쿠보스 선언식

- 공민연계로 추진하는 여성 친화적 마을 만들기 FF(Female-Family Friendly) 파트너십 협정 체결
 - 여성, 육아 세대, 일하는 세대가 ‘나답게 살 수 있는 마을’을 기본 이념으로 추구
 - 구·민간사업자 각각이 지닌 강점과 노하우, 자원을 활용해 육아, 거주·생활, 노동, 교육, 건강 등 여러 분야에서 연계를 추진
- ‘여성 친화적 마을×방재×아트’ 프로젝트인 ‘츠크모루 by Toshima 프로젝트’(ツクモルby Toshima 프로젝트) 실행
 - 이 프로젝트는 ‘내가 만든 것이 당신을 지킨다’라는 콘셉트로 방재 관련 상품을 제조하는 단체 츠크모루와 도시마구가 함께 추진
 - 여성이나 모자(母子)의 눈높이에서 ‘재해 시에 도움이 되는 핸드메이드 상품’ 제작,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방재 워크숍 개최, 이벤트 개최 등을 시행
- ‘여성 친화적 마을’은 여성에게만 친화적인 마을이 아니라, 어린이나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모든 사람에게 친화적인 마을을 목표로 함

- 기타 주요 내용

- 도시마 귀자모신(鬼子母神, 출산과 양육을 돕는 불교신화의 여신) 프로젝트
 - 출산 전부터 이어지는 지원체계 구축,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라이프스타일 형성 지원,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 추구
 - 육아정보 외 20~30대의 젊은 층에게 다양한 건강 정보를 발신하고, 관련 도서 등을 소개하는 공간 ‘귀자모신 Plus’ 무료 운영
 - 결혼·출산·육아 응원 사이트 ‘도시마 보고 아는 모바일’(としま見る知るモバイル) 운영
 - 육아 관련정보, 결혼, 임신 전, 임신 중 여성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 게재하고, 익명의 메일 상담 기능을 제공
 -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가임 능력 향상을 돕는 세미나 개최
 - 산부인과 의사, 조산사, 보건사 등이 참여하는 임신·출산·육아 지원 종합 상담을 매월 1회 시행
- 지속발전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지역과의 공생을 추진
 - 자매도시인 지치부시를 비롯한 교류 자치단체와의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공생과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
 - 도시마구와 지치부시의 활발한 교류를 증진하는 이주·교류 체험 투어 진행
- 도시마구 국제 예술·문화 도시 구상
 - 다양한 문화 자원을 가진 도시마구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안전·안심할 수 있는 인간 우선의 도시공간 정비를 추진
 - 구를 문화예술 표현의 무대로 개방하여 전 세계에서 사람과 산업을 끌어들이는 도시 만들기를 추진
- 리노베이션 마을 만들기
 -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하는 사업
 - 빈집활용을 전문 분야로 하는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빈집 주인에게 사업자 소개, 빈집활용 세미나 개최 등 실행

<https://www.city.toshima.lg.jp/012/kuse/1502231848.html>

<https://www.city.toshima.lg.jp/395/kuse/1607291647.html>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산업·경제

슬라이드 이동형 등 생활지원로봇 실증실험

일본 가나가와현 / 산업·경제

- 일본 국가전략특구의 하나인 ‘사가미로봇산업특구’로 지정된 가나가와현은 최근 생활지원 로봇 실증실험 전국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슬라이드 이동형 로봇과 의복일체형 보행 어시스트 로봇 등 12건을 채택해 실증실험을 진행
- 개요
 - 가나가와현은 국가전략특구의 하나인 사가미로봇산업특구로 지정(2012년)
 - 올해 생활지원로봇의 전국단위 공모전을 열고, 총 12건을 채택해 실증실험을 시작
 - 생활지원로봇의 실용화와 보급을 바탕으로 지역의 안전과 주민 안정을 도모
 - 로봇관련 기업이 입주하면 세제와 금리 지원을 제공
 - 현의 정책과제와 연계하여, 1)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증가하는 관련 수요에 대응, 2) 절박한 자연재해에 대응이라는 로봇산업 2가지 대응 방향 설정
- 실증실험 주요 내용
 - 의복일체형 보행 어시스트 로봇
 - 청바지 형태의 보행보조 로봇으로, 각 관절에 부착된 장치로 움직임을 도움
 - 무게가 가벼워 구속감이 적고 여러 가지 동작을 지원할 수 있음
 - 신슈대학 섬유학부, AssistMotion 주식회사, 이세하라시 경제환경부 상공관광과가 삼자 협력으로 개발



[그림 1] 의복일체형 보행 어시스트 로봇

자료: 신슈대학 섬유학부 제공

- 슬라이드 이동형 로봇
 - 고령자·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로봇
 - 의자 좌면이 상하로 움직여 침대 등과 높이를 맞춰 누운 채로 이동 가능
 - 안전센서 탑재로 주행 중의 위험을 감지하여 충돌사고를 회피



[그림 2] 슬라이드 로봇

자료: 주식회사 티엠서크 제공

- 위아러브 로봇
 - 농수산업을 비롯해 현 내 각종 산업분야의 보급체계를 확보할 목적으로 개발 되었으며, 농업고교와 수산고교 수업에 활용
 - 무거운 짐을 들 때, 공기압식 인공근육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보조
 - 개호현장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약 3,400대(2018년 4월 기준)를 활용 중



[그림 3] 위아러브 로봇

<http://www.pref.kanagawa.jp/docs/sr4/prs/r5260916.html>

<http://www.pref.kanagawa.jp/docs/sr4/prs/r1812753.html>

<http://www.pref.kanagawa.jp/docs/sr4/cnt/f430080/p811470.html>

박재호 통신원, jaehog@naver.com

환경·안전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등 플라스틱 쓰레기 규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 / 환경·안전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와 인근 지자체는 플라스틱 쓰레기, 특히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제정하는 움직임에 앞다투어 착수하였으며, 중앙정부와 민간기업도 여기에 동참하여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절감 노력 중

- 배경
 - 자카르타를 포함한 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매년 악화 중
 - 매년 1억 2,9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강에 버려지며, 1km²당 약 13,000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을 오염
 - 자카르타에서 연간 약 3억 개의 1회용 비닐봉지가 사용
 - 최종 매립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소각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암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보건상의 문제도 유발
 - 향고래 사체 속 플라스틱 쓰레기는 인도네시아 사회에 경각심 심어
 - 지난 11월 18일, 남 술라웨시섬 해안에서 발견된 향고래의 사체에 플라스틱 컵·조각·병·비닐봉지 등 총 5.9kg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고래의 위를 가득 채운 채로 발견되어 인도네시아 전 사회가 충격에 빠지고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됨
 - 비닐봉지 소비세를 도입했지만, 사용 감소 효과는 미미
 - 2016년 2월 1회용 비닐봉지에 200루피아(15원)의 소비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사용 감소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
 -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사람들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최소 1,000~5,000루피아(80~400원)의 소비세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 자카르타 주민의 90% 이상이 가정용 플라스틱 쓰레기 절감에 동참하겠다고 응답
 - 인도네시아 비닐봉지 줄이기 운동본부(GIDKP)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 주요 내용
 - 주정부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주지사 행정령 초안을 준비

- 식료품점의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가 이번 규제의 주요 목표
- 규제 시행은 소매상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시민과 주요 이해관계자와 논의하는 공청회를 거친 후 구체적으로 결정
- 한편, 자카르타 환경국은 1회용 비닐봉지 대신 환경친화적 쇼핑 가방을 전통시장에 보급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승인받음
 - 자카르타 주의회는 주정부에서 제출한 2018년 예산 수정안 2억 400만 루피아(1,600만 원)를 승인하는 한편 예산 증액 고려를 요청
- 자카르타 인근 지자체 역시 앞다투어 플라스틱 쓰레기 규제에 착수
 - 서부 자바주 보고르(Bogor)시는 12월 1일부로 제정된 「1회용 플라스틱 절감에 관한 시 행정령」을 시행하고 모든 현대 상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
 - 전통시장에는 약간의 유예·홍보 기간을 둔 이후 같은 규제를 적용 예정
 - 규제 대상 상점은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여성 중심으로 조직된 가족복지발전 운동(PKK)에서 카사바나 옥수수 섬유로 만든 친환경 재질 쇼핑 가방을 저렴한 가격(12,000 루피아(1,000원))으로 판매하여 참여 독려
 - 같은 주 데폭(Depok)시는 공무원의 플라스틱 집기 사용 금지를 시작으로 시민 참여를 점차 확대 중
 - 또한, 새로운 행정령을 제정하여 하루 평균 100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줄어나갈 계획
 - 자카르타에서 멀리 떨어진 파푸아 주정부도 지난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2020년까지 '플라스틱 배출 제로'를 목표로 설정
- 중앙정부와 민간기업도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 절감 움직임에 동참
 - 재무부 산하 관세·소비세국은 2019년 중 1회용 비닐봉지에 소비세 책정을 고려 중
 - 환경친화적 플라스틱 비닐봉지 생산업체에는 세금 감면 인센티브를, 일반 플라스틱 비닐봉지 생산업체에는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논의
 - 내무부는 장관의 지시로 내무부와 국경관리청 건물 전체에서 1회용 플라스틱 물병·컵·빨대 사용의 전면 금지를 12월 3일부터 시작
 - 그랜드 하얏트 호텔 자카르타는 올 7월부터, 맥도날드는 11월부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종이빨대나 친환경 가방 등으로 대체

9 TIPS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9가지 팁



1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2 물병·텀블러 들고 다니기



3 개인 물컵 사용



4 도시락통 사용



5 1회용 식기, 빨대 사용하지 않기



6 비닐 포장하지 않기



7 식기가 갖춰진 장소에서 식사하기



8 먹고 남은 음식은 유리병에 보관하기



9 다른 사람들과 이 팁을 공유하기

“사랑하는 지구, 쓰레기 줄이기에서 시작”
2018년 쓰레기 줄이기의 날



PEMERINTAH PROVINSI DKI JAKARTA
DINAS LINGKUNGAN HIDUP
(Bidang Pengelolaan Kebersihan)

[그림 1] 자카르타 주정부 환경국이 배포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팁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8/11/28/jakarta-plans-to-ban-single-use-plastic-bags.html>

<http://megapolitan.kompas.com/read/2018/11/28/10522921/jakarta-bakal-larang-penggunaan-kantong-kresek>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8/12/03/top-official-orders-ban-on-single-use-plastic-in-home-ministry-building.html>

<http://www.thejakartapost.com/travel/2018/08/17/grand-hyatt-jakarta-waves-plastic-straws-goodbye.html>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8/08/24/govt-drafts-plastic-bag-tax-regulation-for-2019.html>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8/09/17/city-allocates-budget-for-environmentally-friendly-shopping-bags.html>

<http://megapolitan.kompas.com/read/2018/12/04/16531501/pemkot-depok-berencana-terbitkan-peraturan-untuk-kurangi-sampah-plastik>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8/12/02/bogor-bans-single-use-plastic-bags-in-all-modern-retailers.html>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8/06/04/papua-pledges-zero-plastic-waste-by-2020.html>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6/02/22/minimum-plastic-bag-tax-set-negligible-rp-200.html>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자동차도로·집앞 보행로 제설규정 ‘손질’

캐나다 에드먼턴市 / 환경·안전

- 캐나다 에드먼턴市는 북부 내륙의 특성상 강설량이 연평균 124cm 수준이지만, 급격한 기후 변화와 폭설 빈도의 증가에 따라 강설대책의 변화를 모색함. 염화칼슘을 이용한 결빙방지 시범사업 실행과 집 앞 보행로 제설규정 개정으로 제설방안을 효율적으로 고쳐 나가는 중
- 개요: 에드먼턴시 제설 원칙
 - 시 관리 도로는 강설이 끝난 후 48시간 이내에 주요 도로를 청소하는 것이 원칙
 -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우선하며, 실시간 제설 지도를 바탕으로 장비와 인원을 유동적으로 투입
 - 공공 제설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되고 마을에 모래함을 설치해 자체 제설을 지원
 - 눈이 시작된 후 48시간 이내에 집 앞 보행로의 제설작업을 하지 않으면 건당 100캐나다달러(9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 시는 오픈데이터 포털에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10,600건의 제설 불편 사례를 공개하고 구역별로 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별도의 제설 업체를 고용했을 때는 업체에도 범칙금 부과 가능
- 제설정책과 규정의 변화
 - 2017년 염화칼슘을 이용한 ‘결빙방지 시범사업’(Anti Icing Pilot Project) 실행
 - 부식 방지제가 첨가된 염화칼슘 용액을 사용하여 에드먼턴 시내 도로 중 40%에 해당하는 약 3,000km 구간에 결빙방지 작업
 - 폭설 전 또는 도중에 한 번 적용하며, 눈의 빙점을 낮추어 도로 기능을 유지시키고 얼음의 파쇄·회수 빈도를 크게 줄여줌
 - 염화칼슘 사용은 대기온도 -15°C , 상대습도 70%, 도로 수분, 이슬점과 대기온도의 차이, 풍속 24km/h 등의 기준을 고려해 살포 시간과 양을 결정
 - 시범사업 성과는 있지만, 염화칼슘 사용의 부작용 등 개선이 필요
 - 2017년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설 비용은 최근 5년 평균보다 430만 캐나다 달러(38억 원) 줄었고, 제설용 모래도 68% 적게 소모

- 염화칼슘이 초래하는 부작용에 따른 우려
 - 소금과 염화칼슘의 영향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의 동결-해동 사이클을 증가시키며 경화된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힐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보고
 - 현재의 장비와 제설방법이 염화칼슘 부작용 최소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 사용량이 늘어나고 장비개선 비용이 추가되어 비용절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보고
 - 염화물과 모래 사용의 증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도 속제로 지적
 - 시민의 60%는 염화칼슘에 의한 차량 부식을 우려하지만, 시는 부식 방지제가 포함된 제품 사용을 강조
 - 현재 영하 25℃ 이하일 때는 이와 같은 제설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 시범사업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 프로세스 개발, 직원 교육, 날씨 패턴 모니터링 등을 시행 중
- 집 앞 보행로의 제설규정 현실화
 - 현재의 조례는 눈이 내린 후 48시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이 시간 안에 개인이 집 앞 보도의 제설작업을 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
 - 그러나 시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시민이 혼란을 겪고 있음
 - 시는 2018년 11월 5일 공개인터뷰를 갖고, 일반적으로 눈이 계속해서 오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즉각 제설을 하기란 불가능하므로 조례의 불명확한 부분을 바로잡기로 함
 - 시는 실제 눈이 그친 후 48시간 이내에 제설해야 한다는 의도로 조례가 작성되었으므로, 시민의 혼란을 초래하는 해당 규정 삭제를 약속

<https://edmontonjournal.com/news/local-news/anti-icing-pilot-project-reduced-cost-to-city-used-less-sand-report>

<https://globalnews.ca/news/4631293/edmonton-shovel-sidewalks-snow-winter-48-hours>

https://www.edmonton.ca/transportation/on_your_streets/anti-icing-pilot-program.aspx

장지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도시교통

접근·안전·저가성 기반 노인특화 교통전략 수립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 도시교통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전략(Older Persons Transport and Mobility Plan 2018~2022, 이하 ‘노인 교통전략’)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중임. 접근성·안전성·저가성(Affordable)의 원칙을 바탕으로 모든 교통수단과 이동 방식에 걸쳐 종합적인 노인 이동성 향상방안을 제시
- 배경 및 목적
 - 20년 후 교통서비스 이용자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될 전망
 - 2031년 뉴사우스웨일즈 주민 3명 중 1명은 50세 이상이 되고, 20년 후에는 교통서비스 이용자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으로 조사
 -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약 절반(49.4%)은 장애가 있으며, 4명 중 1명 이상(27.4%)은 이동과 교통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
 - 노인 9명 중 1명(12%)은 여전히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로자이며,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를 지향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노년층의 교통 수요는 현저히 증가할 예상
 - 주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범정부·범지역사회 대응 정책인 ‘노인 전략’(NSW Ageing Strategy 2016~2020)’을 실행 중
 - 이 전략은 전 생애에 걸친 이동성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주요 내용
 - ‘노인 교통전략’은 ‘노인 전략’에 기초하여 수립되었으며, 노인을 위한 교통정책의 필요성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
 - 1) 활동적 노화 추구에 따라 노인의 적극적 교통 생활을 권장·보장
 - 노화에 따른 이동성 저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노년을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욕구는 유지
 - 따라서, 노인의 독립적 이동을 지지하는 동시에 보행과 자전거 등 노인의 ‘적극적 교통’이 권장·보장될 필요가 있음

- 2) 활동량 완화와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안전한 교통’의 중요성
 - 노년기에는 이동 빈도와 거리, 야간 이동 횟수 등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이동 패턴이 변화
 - 또한, 치매나 인지력 감소 등 이동 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교통’의 중요성이 부각
- 3) 노인의 일상 교통생활을 지지할 노인특화적인 ‘보호’ 서비스 강화
 - 버스·전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일상 교통생활을 지지할 노인특화 ‘보호’ 서비스 강화가 필요
-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안전성’, ‘정보 접근성’, ‘독립성’ 등 크게 네 가지 원칙을 명시하고, 영역별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

[표 1] 노인 교통전략 주요 내용

원칙	실행방안(주요 내용 발췌)
지역사회와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Transport Access Program) 지속 시행으로 대중교통 화장실·대기실·좌석 등 시설 업그레이드 - 저상 버스 공급 확대, 기차 플랫폼 간극·높이 개선, 주말 대중교통 공급 확대, 노인을 위한 도로 표지판 개선 - ‘적극적 교통 프로그램’(Active Transport (Walking and Cycling))을 지속 시행해 노인 보행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안전 계획’(Road Safety Plan 2021) 지속 시행으로 보행자 사고 빈발 지점에 노인을 위한 시설 개선, 노인 보행 안전 캠페인 시행 - 보행과정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 노인에게 발생하는 위험 행위 예방, 위험 지역 개선 - 노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추돌방지장치 등이 탑재된 안전한 차량 구입 지원
정보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테크놀로지 이용 활성화’(Tech Savvy Seniors Program) 프로그램 시행 - 취약계층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해 주는 ‘여행 지원 프로그램’(Travel Training)을 지속 시행하고, 프로그램 인지도 향상 - 운행 시간표 등 교통 정보 전반의 노인 가독성 향상
독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화에 따른 장애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되는 ‘택시 이용 보조금 제도’(Taxi Transport Subsidy Scheme) 지속 시행 및 보조금 인상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차보조금 제도’(Mobility Parking Scheme) 지속 시행 - 지역사회 셔틀버스 등에 대한 주문형(On-Demand) 대중교통 도입으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

- ‘노인 교통전략’은 기존에 주정부가 추진해 오던 다양한 노인지원 교통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에 추진할 실행방안을 추가
 - 특히, 접근성·안전성·저가성 강화 등을 고려해 노인을 위한 교통계획 수립 시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통합, 활용하는 접근법을 강조

- 예를 들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교통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
- o 또한, 교통서비스 일선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치매고객 서비스 훈련, 병원이나 지역사회 센터 등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등을 교통설계 개선의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노인 교통전략은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교통 욕구에 기초한 평생(Whole of Life) 교통 접근법을 채택

<https://www.facs.nsw.gov.au/about/media/releases/help-keep-our-ageing-population-moving>

https://future.transport.nsw.gov.au/sites/default/files/media/documents/2018/Older%20Persons%20Transport%20and%20Mobility%20Plan_0.pdf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

도시계획·주택

옥외광고물 설치부터 관리까지 규제·지도

일본 오사카市 / 도시계획·주택

- 일본 오사카市는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유지와 시민의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부터 관리까지를 규제·지도 중임. 모든 옥외광고물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고, 경관 형성 지역은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광고주의 성명을 공개하고 과태료를 부과

- 배경
 - 도시환경과 사회정세 변화에 따라 효과적 옥외광고 규제 필요성 발생
 - 도시의 밀도가 높아지고 경제활동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옥외광고물이 자연스럽게 증가
 -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를 규제·지도하는 조례를 마련

- 주요 내용
 - 모든 옥외광고물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고 설치
 - 허가신청서는 옥외광고물 설치 장소 표시 문서, 디자인 도면, 관리자 자격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
 - 수수료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150~950엔(1,500~9,500원)
 - 신규신청 이후에는 변경신청이나 연장신청을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 사전 허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 오사카시 옥외광고물 사전허가 제외 대상

옥외광고물 사전허가 제외 대상 광고물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법·도로교통법·소방법 등 법령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것·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광고물 중 기준을 충족하는 것· 개인 소유의 가게나 건물이 영업·관리상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 중 표시 면적이 7㎡ 이내인 것· 장례·제례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것· 공사현장의 비거리목적 광고물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것

- 광고물 경관 형성 지역은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함
 - 지역 특성에 따라 경관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지정된 '광고물 경관 형성 지역'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장·색채 등을 심사
- 등록된 업체만 옥외광고물을 설치 가능
 - 2007년부터 옥외광고업 등록제 시행
 - 업체 등록 방법은 오사카부(府)의 등록을 받고 오사카시에 신고하는 방법 (특례신고)과 오사카시의 등록을 받는 2가지 방법이 있음
 - 특례신고 시에는 신청수수료가 없음
 -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함
 - 시는 무등록업체에 광고물 설치 등을 의뢰하지 않을 것을 홍보
-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지도·규제업무를 정기적으로 시행
 - 시정부는 상품 홍보나 체인점 점포 안내 등을 위해 광고물을 대량 제작·배포 하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광고물 적정관리 의무를 도입
 - 해당 광고주가 산하 소매점 등에 설치된 위반 광고물을 철거하도록 지도하지 않았을 때는 조례에 따라 시가 규제 실행을 명령할 수 있음
 - 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광고주의 성명을 공개하고 과태료를 부과

<http://www.city.osaka.lg.jp/kensetsu/page/0000372127.html>

<http://www.city.osaka.lg.jp/kensetsu/cmsfiles/contents/0000372/372127/shiori20171001.pdf>

<http://www.city.osaka.lg.jp/kensetsu/cmsfiles/contents/0000372/372127/guideplan20171001.pdf>

<http://www.city.osaka.lg.jp/kensetsu/cmsfiles/contents/0000372/372127/tourokunotebiki20191001.doc.pdf>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촘촘한 관리의 ‘광고물조례’ 별도 제정해 경관보호

프랑스 보르도市 / 도시계획·주택

- 프랑스 보르도市는 기본적인 도시계획 조례(PLU: Plan Local d'Urbanisme) 외에 별도의 광고물 관리 지방조례를 제정해 도심은 물론 외곽지역의 경관까지 관리 중임. 광고물의 종류, 설치형태, 크기, 위치 등 관련 요건을 꼼꼼하게 작성해 분쟁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한 사전 심의제도 운영으로 도시경관을 보호

- 개요
 - 건축물 신·개·증축 시 받아야 하는 허가 심사에 건축물 외관 규정을 엄격히 정해 도시의 심미적 특색을 유지
 - 치수, 면적, 높이, 설치 가능한 형태, 위치 등에 관한 정확한 규정을 마련해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차단
 - 시정부는 보르도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형태별 옥외광고물의 규제장치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마련
 - 금지처분 - 허가 - 크기 축소 - 개수 줄임 - 설치 기간 줄임(임시 광고물 등)

- 보르도 전 구역과 시외구간 공통규정
 - 시 전체 구역과 시외구역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옥외광고물 조례 규정
 - 간판은 건축물과 어우러져야 하며, 건축물의 선, 창문 등 개구부의 위치, 출입문, 문양 등 모든 건축요소를 고려해야 함
 - 디지털 전광판형태 간판의 광고 유효면적과 구조물 전체 면적 규정
 - 광고 유효면적이 2㎡ 이내일 때, 구조물 전체 면적이 2.5㎡를 넘지 않아야 함
 - 광고 유효면적 8㎡ 이내는 구조물 전체 면적을 10㎡ 이하로 제한
 - 양면 광고판이 아닌 옥외광고물은 후면의 고정장치 등이 보이지 않도록 같은 재질로 감싸야 함
 - 옥외광고물의 별도 조명 장치는 형태를 막론하고 금지하고, 발광간판은 새벽 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소등
 - 나무에 간판 설치 금지
 - 간판의 개당 면적이 1㎡ 이상일 때는 펜스 울타리, 담장 등에 설치 금지
 - 개당 면적이 1㎡ 이하여도 주변 경관을 해칠 때는 설치 금지

- 주출입구가 없는 건축물 파사드(전면부)에는 한 개의 벽면간판만 허용
 - 임시 광고물은 적어도 행사 10일 전에 설치하고, 행사 후 3일 이내에 철거할 것
 - 부동산 판매·임대 등의 광고물은 그 면적이 0.5㎡를 넘을 수 없음
 - 건물 인접도로에 설치하는 임시광고물은 형태와 상관없이 도로 하나에 하나씩만 허용
 - 도로에 인접한 상점의 간판은 반드시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야 하고, 폐점 시에는 폐업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간판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 교외 자연구역의 관리 조례항목
- 자연경관지구, 국립·도립·시립 공원, 숲, 주거단지 내 공용정원, 도심 농장 등의 구역에 적용되는 조례
 - 건물지붕이나 옥상에 광고물·간판 설치 금지
 - 지면에 직접 설치하는 광고물은 면적 2㎡ 이하, 높이는 4.5m 이하여야 함
 - 벽면에 설치되는 광고판 등의 구조물은 돌출 정도가 25cm를 넘을 수 없음
 - 벽면과 평행 혹은 직각 설치된 구조물 모두에 해당하며, 어떤 때에도 건축물 지붕의 처마끝선을 넘지 못함
 - 상점 건물의 간판은 모든 간판의 면적 합계가 건축물 파사드 면적의 15% 이하일 것
 - 단, 상점 규모가 50㎡ 이하일 때는 면적 제한을 25%까지 상향 가능
 - 쇼윈도 등의 개구부도 파사드 면적 계산에 포함
 - 디지털 화면 광고판은 금지
- 기타
- 위에서 살펴본 규정 외에도 보르도시는 도시의 모든 구간별로 자세한 규정을 제정해 옥외광고물을 관리 중
 - 문화재 구역 관리 조례, 지상 경전철 주변구역 관리 조례, 주거지역의 관리 조례, 주요 대로변 관리 조례, 번화가 구역 관리 조례 등이 포함

<http://www.bordeaux-metropole.fr>

<http://www.bordeaux.fr>

보르도 시내 및 보르도 광역시 옥외 간판 및 광고구조물 관련 법규(RLPI)

보르도 시내 및 보르도 광역시 옥외 간판 및 광고구조물 관련 법규제정 보고서

보르도시 건축조례(PLU)

김준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활용도 낮은 가판대 10곳 새 용도 모색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 도시계획·주택

-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는 도시 내 가판대 중 활용도가 낮은 10곳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새 용도를 찾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운영을 장애인 협동조합에 맡겨 취약 계층 일자리 확보에 이바지할 계획
- 개요
 - 가판대의 활용도가 갈수록 낮아져 새로운 활용법 고민 필요
 - 시내에 총 338개의 가판대가 있고, 이 중 사용 중인 가판대는 285개
 - 종이신문·잡지의 판매가 크게 줄어 가판대의 수익모델이 악화
 - 가판대 임대료는 저렴하지만, 수익성은 위치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며 모든 허가는 2030년 9월 만료 예정
 - 활용도가 낮은 가판대 중 10곳을 선정해 새로운 용도 모색
 - 판매 기능 외에도 사회적·문화적 공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구상
 - 새로운 용도와의 적합성, 지역 내 상호작용 정도와 상황 등을 분석해 결정
 - 수 개월간의 미사용 가판대 선별 작업 후 선정할 계획
 - 장애인 일자리 제공 목적으로 공공이 주도하고, 장애인 협동조합에 운영을 위탁



[그림 1] 바르셀로나 시내 가판대 전경

- 주요 내용

- 문화·환경·사회 서비스 제공 등 가판대의 새로운 용도를 다각도로 모색
 - 대안적·순환적 경제활동 거점으로 활용
 - 온라인쇼핑 물품 보관소, 관광객을 위한 수화물 보관소, 이웃 관리 서비스 등
 - 문화 서비스
 - 지역 예술가의 전시회 관리, 역사적 기록물 보관소, 다문화 소통공간 등
 - 환경 서비스
 - 자전거 보관·수리, 도시농업 씨앗 배포, 와이파이 제공, 휴대전화 충전 서비스 등
 - 사회 서비스
 - 책·보드게임 자율 교환대, 야간의료 지원, 학교 통학 도우미, 지자체·시민 단체의 활동 정보 제공 등
- 노동통합(Work-Integration)형 장애인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
 - 장애인 연구소 주관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통합형 협동조합으로 설립
 - 직원의 최소 30%는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한 사람으로 고용
 - 시범사업을 담당할 총 25명의 조합원을 뽑아 6개월간 교육·상담을 시행 후 투입

https://www.barcelona.cat/infobarcelona/es/nuevos-usos-sociales-para-los-kioscos-en-desuso-2_743630.html

진광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ISSN 2586-5102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www.s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

